

현대불교

불기 2552년 buddhanews.com

서기 2008년 7월 23일 수요일 제 689 호

여름 특별기획 섹션 1

절망 닦아낸 태안반도에서 희망을 만나다

올 여름 태안은 '보람'과 '정진'의 화두가 성성적(惺惺寂寂)한 도량이다. 2007년 12월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은 태안 주민과 국민들에게 절망의 사건이었다. 7월 어느날 찾아온 태안은 120여만명의 정성이 기적을 이룬,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의 공간이다.

태안반도 만리포 해변에서 만난 갈매기 한 마리가 소설 <갈매기의 꿈>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을 떠올리게 한다. "나는 내가 공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,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"이라 말한 갈매기 조나단의 창조와 도전 정신은, 삶을 에는 마당바람 맞으며 기름을 걸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이었다.

자비와 수행은 중생과 부처를 잇는다. 태안에 가면 중생도 부처도 한 몸이다.

글=조동섭 기자·사진=박재완 기자